

#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찬양해요 주께 가오니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1:30-38

-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 33 영원히 아굽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 가문으로 나사렛 출신 여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도 친척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결혼한 후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뒤를 이어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또한, 여럿의 딸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우주를 구원할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혼만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큰 불행이지만, 성령에 의한 잉태이기에 큰 복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깰 수 없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저 겸손한 태도와 믿음으로 성령에 의한 잉태를 수용하였습니다.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귀한 주의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 교리에서처럼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로 믿거나 그녀를 숭배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단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1 지금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지만 사실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31-32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 2 임신했다는 말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35절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 3 로마 가톨릭교회는 마리아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 4 천사의 대답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38절)
- 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믿음의 그릇과 허락하신 재능에 따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구원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내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시간과 물질, 재능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눠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과 재능이 부족하지만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시간과 물질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